

정책동향

중기추 “벤처투자 재원 1조원 조성”

정부는 벤처기업 재도약을 위해 올해 재정자금 3700억원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재원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벤처투자 재원은 부품·소재산업과 생명공학, 환경기술 등 신산업에 투자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5년까지 5천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해외시장 개척요원을 50개국에 파견하고 수출지원 대상 벤처·중소기업을 800개로 늘리는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서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총 수출액의 5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 확대차원에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직접금융기회를 늘리고 직접대출 정책자금의 신용대출 비율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설립

산업자원부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재돼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6년까지 충남 아산시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충남 테크노파크 등이 주체가 돼 설립하는 센터는 향후 5년간 국비 345억원, 지방비 71억원, 민자 45억원 등 총 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센터는 특히 산·학·연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디스플레이 관련 응용시제품 개발 및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사업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으나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일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핵심원천기술 개발, 장비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율 제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센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기술동향

바이러스 사냥꾼 서울 총집합

전세계 ‘바이러스 사냥꾼’들이 서울로 모인다.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는 AVAR(Association of Anti-Virus Asia Reseachers, 아시아안티바이러스협회) 국제컨퍼런스를 오는 11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티바이러스 월드컵’으로 불리는 AVAR는 바이러스 블리틴(Virus Bul letin)과 함께 안티바이러스 분야의 세계 2대 국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홍콩행사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안티바이러스 기술분야의 ‘쌍두마차’인 베셀린 본체프(Vesselin Bonchev)와 지미 쿠오(Jimmy Kuo)가 각각 기조연설 발표자로 참석하는 등 전세계 30여개 나라의 정보·보안 전문가 2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인 안철수 사장은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에게도 정보·보안 안티바이러스 기술의 세계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생물도 맞춤 제조한다

산업적 목적에 맞는 ‘맞춤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원장 홍창선) 김선창 교수팀은 과기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지원으로 미생물에 불필요한 유전자를 제거, 유전체를 축소시켜 새로운 미생물을 만드는 ‘맞춤 균주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논문에는 따르면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산업적 이용가치가 큰 대장균에 적용, DNA 단편(loxP)을 대장균 유전체에 삽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유전자 300여개를 동시에 제거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인위적으로 디자인된 미생물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의 생산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약품 생산공정에서 분리, 정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번 기술로 만들어진 균주들은 몇 년 안에 전세계 생명공학자들에게 폭넓게 이용될 것”이라며 “이미 미국 유명 생명공학자로부터 벤처기업 설립을 제의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동향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성과 발표

중소기업청은 '200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성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약 10배의 성과를 보였으며, 창출된 고용효과는 업체당 평균 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성과 분석결과, 응답기업의 42%가 국내 외에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했거나 출원 중이며, 개발제품의 성능은 세계최고 수준대비 85%정도로 조사됐다.

상업화 단계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금년보다 10% 증액된 1100억원을 내년도 기술혁신개발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업체의 사업화 촉진과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 일대 '벤처밸리' 추진

서울 영등포구 일대 78만여 평에 오는 2006년까지 벤처밸리가 조성된다. 영등포구는 첨단산업 유치에 통한 지역개발과 자립적 벤처사업 육성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6200여억원을 들여 지난 2000년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한 여의도동과 영등포동, 당산동, 도림동, 문래동, 신길동 일대 2600km(78만6500평)에 벤처밸리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 여의도지구는 첨단 정보기술 집적단지로 조성하고, 영등포 삼각지역은 유통서비스와 1차산업 부문의 시장활동 및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되는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영등포구는 2004년까지 법·제도적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거쳐 2005~2006년 마케팅 및 기업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외뉴스

[미국] 부의 상징 스톡옵션 '천덕꾸러기' 전략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 스톡옵션은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른바 엔지니어들에게 부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던 스톡옵션이 지금은 콜치덩어리로 전락했다.

최근 스톡옵션과 관련 파산 선언이 늘면서 미국 정부는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세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제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과거 스톡옵션의 규모가 마치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 스톡옵션이 얼마 다라는 것을 자랑하던 시기는 흘러가 버렸다.

스톡옵션이 벤처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상승세로 돌아설 때까지 천덕꾸러기 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중국 벤처캐피탈 산업 분석

중국 벤처캐피탈산업은 크게 4단계로 발전해 왔다. 1996년 이전에는 소규모 벤처캐피탈 중심으로 유지돼 왔다.(준비단계) 그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벤처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내리면서 중국 벤처캐피탈 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시작단계) 이후 벤처캐피탈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됐다. 이에 정부가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제2증권교역시장(차스닥)의 설립준비에 들어갔다.(성장단계)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 벤처캐피탈은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되었다.(조정단계)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따른 내부적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열기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e-Japan이 넘어야할 산, '주기네트'

e-Japan 전략은 2005년까지 일본을 세계 최첨단 IT국가로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시작된 일본 정부의 시책으로, 모리 요시로 내각의 자문기관인 IT 전략본부가 결정한 국가 전략이다.

그러나 올해로 2년째를 맞은 e-Japan 전략은 넘어야할 산이 많은 듯하다. 그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네트'의 처리문제. 국민 모두에게 11자리의 주민번호를 할당해 앞으로 구현될 전자정부의 기반을 닦겠다는 이 야심찬 전략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8월 5일 가동된 국가네트워크에 접속을 거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본 전국의 3300개 지자체 가운데 70개. 구청장·촌장 등이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